



추석연휴 뒤 코스모스와 함께 추석연휴 마지막날인 22일 광주시 서구 유덕동 광주천변을 찾은 한 시민이 가을을 알리는 코스모스가 활짝 핀 풍경을 즐기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

“63년 오매불망 기다렸는데... 北오빠 생존 확인해 정말 다행”

이산가족 상봉 연기 아쉬움 광주 김순임씨

“가족사진 함께 찍을 날 오겠죠”

“63년 동안 기다렸는데, 더 못 기다리게 뭐 있습니까. 죽은 오빠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안 것만으로도 다행이죠. 언젠가 만날 수 있겠지요.”

김순임(74·광주시 서구 내방동·사진)씨는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김씨는 지난 16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6·25 때 헤어진 오빠 권수(80)씨가 북한에서 찾고 있다는 꿈 같은 소식을 들은 뒤 5일 만인 21일 ‘이산가족 상봉 연기’ 소식을 접했다. 이뤄질 것 같지 않아 가슴 한 칸에 묻어뒀던 그리움을 끝내 접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함이 밀려왔다.

김씨 큰 오빠는 취직한다며 상경했다가 한국 전쟁 발발로 소식이 끊겼다. 집안의 기둥인 오빠가 사라지면서 김씨 어머니는 화병으로 세상을 등졌다. 김씨 아버지와 둘째 오빠도 눈을 감을 때까지 똑똑하고 정이 넘었던 큰 오빠를 그리워했다고 김씨는 회상했다. 그런 오빠를 만날 수 있다는 연락을 지난 16일 적십자사에서 받았다. “꿈인지 생시인지” 정신이 아득해졌다고 했다. 광주·전남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중에는 상봉자가 한 명도 없다는 뉴스를 보며 가슴이 먹먹해져 있던 때라 더욱 그랬다.

그 만큼 상봉 연기 소식에 따른 아쉬움도 컸다. 추석을 쇠고 나면 만나게 될 오빠에게 건네줄 선물과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애것거리를 생각하며 잠까지 설쳤다. 기대가 컸던 탓에 북한의 일방적 연기 통보에 대한 야속함도 내비쳤다. 김씨는 “30년 전 찍은 가족사진에 큰 오빠가 없다. 이번에 만나면 사진을 찍어놓을 생각이었는데...”라며 말을



흐렸다. 그러면서 김씨는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기다릴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 행사 연기에 따라 북측에서 요청한 상봉 대상자에 포함돼 28~30일 금강산에서 가족을 만날 꿈에 부풀어있던 광주 2가족, 담양 1가족의 꿈도 미뤄지게 됐다.

/*정렬기자 halo@kwangju.co.kr

내년 공휴일 67일...12년만에 최다

내년에 공휴일은 67일로 12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내년엔 일요일과 법정 공휴일을 합한 뒤 겹치는 날을 빼면 공휴일은 총 67일이다. 지난 2002년(67일) 이후 달력의 ‘빨간 날’이 가장 많은 셈이다. 이는 내년 추석 전날(9월 7일)이 일요일과 겹치지만, 대체 휴일제 시행으로 추석 연휴 다음날인 9월10일(수요일)을 쉬게 돼 실제 공휴일 수가 늘어날 때 때문이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일요일과 국경일, 1월1일, 설, 부처님 오신 날,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한글날, 성탄절을 공휴일로 하고 있다. 제헌절은 2007년까지 공휴일이었지만 2008년부터 쉬지 않는 국경일로 바뀌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대구과학고 교지에 전라도 비하 글

‘전라민국’·‘흥어’ 묘사 인터넷 글 인용

시교육청 “교지회수 조치·관계자 문책”

대구의 한 영재학교 교지에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내용의 글이 실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대구 과학고등학교가 지난해 발간한 교지에 실린 ‘전라도’라는 제목의 글이 해당 지역을 비하하고 있다며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 트위터 등에서 구설에 올랐다.

이 교지에는 전라도를 ‘전라민국’으로, 전라도민을 ‘흥어’로, 전라도 방언을 ‘거시기어’로 묘사하고 있다. 시교육청이 진상 파악에 나선 결과 이 글은 한 2학년 학생이 자신의 고향인 전라도를 학교 동문들에게 재미있

게 소개하려고 쓴 것으로 밝혀졌다. 학교측은 “이 학생이 인터넷 유명 사이트의 글을 인용해 기고했으며 당시 교내 편집회의에서 논란이 있었으나 글쓴이의 취지를 고려, ‘본 문서는 사실과 허구성이 적절히 조화되어 있습니다’라고 밝히고 교지를 발간했다”고 해명했다.

시교육청은 논란이 된 글이 실린 교지를 모두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교지 발간 과정을 더 조사해 문제가 발견되면 관계자를 문책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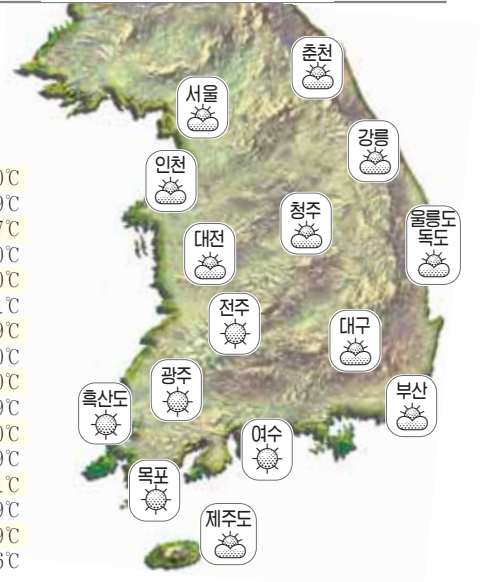
학교 측은 이날 자체 홈페이지에 “영재고등학교교육기관으로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을 사과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연방뉴스

오늘 날씨 해돋이 06시 21분 해질 18시 28분 달돋이 20시 45분 달질 09시 56분

가을 늦더위

일교차 큰 가운데 가끔 구름 많겠다.

광주	맑음	20/30℃
목포	맑음	21/29℃
여수	맑음	21/27℃
나주	맑음	17/30℃
완도	맑음	20/30℃
구례	맑음	17/31℃
강진	맑음	19/29℃
해남	맑음	20/30℃
장흥	맑음	19/30℃
순천	맑음	16/29℃
영광	맑음	18/30℃
진도	맑음	20/29℃
전주	맑음	18/31℃
군산	맑음	19/29℃
남원	맑음	16/29℃
혁신도	맑음	21/26℃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식중독지수	자외선지수	불쾌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동~남동	0.5~1.0m	0	1~2	보통
동해 남부 앞바다	동~남동	1.0~1.5m	0	1~2	보통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1.0~2.0m	0	1~2	보통
남해 동부 앞바다	북동~동	1.5~2.5m	0	1~2	보통
〈오후〉 바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동~남동	0.5~1.0m	목포 04:22	09:28	
동해 남부 앞바다	동~남동	1.0~1.5m	16:53	21:52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1.0~2.0m	여수 11:16	04:49	
남해 동부 앞바다	북동~동	1.5~2.5m	23:17	17:09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4(화)	25(수)	26(목)	27(금)	28(토)	29(일)
날씨	☁	☁	☀	☀	☀	☀
최저/최고	20/28	20/24	14/24	12/25	14/25	17/26

광주과기원 新항암치료법 개발

단백질 ‘유비퀴틴’ 생성 억제해 암 세포 증식 막아

광주과기원 연구진이 ‘유비퀴틴(Ubiquitin)’이라는 단백질의 세포 내 공급을 줄임으로써 각종 암(癌)세포의 증식을 막고, 세포 사멸을 유도하는 새로운 항암 치료법을 제시했다.

지스트(GIST·광주과학기술원) 생명과학부 유영준 교수(교신기자)가 주도하고 오충섭(32) 박사과정생이 제1저자로 참여한 이번 연구는 지스트가 수행하는 시스템생물학인프라구축사업과 개발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됐으며, 네이처(Nature) 자매지인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 9월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76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조그마한 단백질인 유비퀴틴은 세포 내 수많은 단백질에 연결되면서 거의 모든 세포 내 기능에 관여하고 있다. 세포 기능이 제

대로 작동하려면 필요한 양의 유비퀴틴이 적시에 원활하게 공급돼야 한다. 유 교수 연구팀은 특정 유비퀴틴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해 결과, 세포 내 유비퀴틴의 공급을 감소시켜 여러 종류의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고 세포 사멸을 유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양세포를 이용한 실험 및 동물 실험을 통해 확인했다. 또 정상유방세포(MCF10A)와 유방암세포(MCF7)를 비교 분석해 이러한 효과가 암세포에겐 발생함을 증명했다. 이번 연구는 유비퀴틴의 생성 억제를 통한 유비퀴틴 자체 양의 감소가 항암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새로운 개념의 암 치료 방법을 최초로 제시한 연구결과로 평가되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시원하고 깨끗한 소리-소리샘보청기

microtech SORISEM 소리샘 보청기

소리샘보청기 창립 20주년 기념 보청기 대축제

2000만원의 경품을 잡아라~

1등: 500만원대 고급형 보청기(3대)
 • Sound Lens 110-안보이는 고품형 보청기
 • Focus 50XP-고급 맞춤형 보청기
 • WI Series 110-무선 맞춤형 보청기

2등: 고급형 보청기(3대)
 • XINO TINNITUS 90-이명 보청기
 • ARIES PRO-맞춤형 보청기
 • XPERIA-기성형 보청기

3등: 보청기 할인쿠폰(참가자 전원)
 • 보청기 배터리 할인 쿠폰
 • 보청기 수리비 할인 쿠폰
 • 보청기 구입비 30~50% 할인 쿠폰

참가방법: <소리샘 보청기> 인터넷홈페이지 www.sorisem.co.kr 에 방문하셔서 보청기대축제 경품행사에 참여 하시면 됩니다.
 행사기간: 2013년 8월 1일~10월 31일 까지
 경품 교환장소: 소리샘 지역 센터 (경품 수령시 제세 공과금은 없습니다)

고급형 보청기도 타고, 할인 쿠폰도 받고!
 <소리샘 보청기> 창립 20주년 기념 보청기 대축제-

<소리샘 보청기>에선 창립 20년 동안 보내 주신 고객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2000만원 규모의 경품과 보청기관련 할인 쿠폰을 준비하여 보청기 대축제를 개최 합니다. 소리샘보청기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경품당첨의 행운을 누리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호남권 ● 광주남구센터 062-673-8070 ● 광주동구센터 062-234-5853 ● 목포센터 061-284-4815 ● 순천센터 061-744-5013 ● 익산센터 063-841-1149 ● 고창센터 063-561-0603 ● 여수센터 061-684-2800

서울권 ● 중로센터 02-2269-9911 ● 강남센터 02-572-6662 ● 대림센터 02-859-2750 ● 중랑센터 02-744-7558 ● 홍제센터 02-725-5869 ● 강서센터 02-2658-0023

경기권 ● 강북센터 02-945-2393 ● 구리센터 031-555-2700 ● 평촌센터 031-389-5666 ● 부천센터 032-322-7782 ● 수원센터 031-252-3992 ● 동인천센터 032-764-1411

경기권 ● 남인천센터 032-421-0001 ● 파주센터 031-946-6464 ● 분당센터 031-704-5255 ● 일산센터 031-923-0339 ● 강화센터 032-933-2565

강원권 ● 원주센터 033-743-0533 ● 강릉센터 033-641-8129 ● 춘천센터 033-243-9969 ● 동해센터 033-532-4171 ● 횡성센터 033-344-5233

충청권 ● 대전중앙 042-931-4121 ● 대전충구 042-221-4260 ● 금산센터 041-754-8484 ● 괴산센터 043-832-2364 ● 진천센터 043-536-6003 ● 횡성센터 043-344-5233 ● 청주센터 043-225-0038

영남권 ● 대구성서 053-526-9555 ● 대구충구 053-253-6868 ● 부산센터 055-245-7898 ● 부산시면 051-816-9771 ● 진주센터 055-741-1252 ● 김해센터 055-324-2789

영남권 ● 창원센터 055-288-8088 ● 울산센터 052-269-2900 ● 고성센터 055-674-7030 ● 김주센터 055-331-3665 ● 창원센터 055-533-9022 ● 진주거성 055-755-5668

제주권 ● 제주센터 064-753-5347

소리샘보청기 가맹점 문의 02-499-7300